『신앙과 학문』. 17(2). 201-227.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

차 유 림**

논문초록

본 연구는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안녕감이 조절하는지 확인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광역시,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사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92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변수간의 관계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불안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영적 안녕감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간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대한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력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우울·불안에 대한 영향에 대해 영적 안녕감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과 관련된 실천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부모사별 청소년, 부정적 생활사건, 우울·불안, 영적 안녕감, 조절효과

---

* 본 연구는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 데이터 중 일부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012년 5월 9일 접수, 6월 11일 최종수정, 6월 14일 게재확정

I. 서론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신체적, 인지적, 도덕적, 대인관계적, 심리사회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에 비해 미성숙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기술이 부족하며, 한정된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정체감 형성이 채 이루어지지 않아 이와 관련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불안정성과 불완전성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각한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보이는데, 특히 사별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Balk, 1991; Ickovics et al., 2006).

이 가운데 부모사별[1]은 자녀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상실 중의 하나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의 죽음은 성인들이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보다 더 큰 정서적 고통과 가족의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자녀들의 삶의 안녕을 저해하는 2차적인 어려움을 동반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권미란, 2001; 박효실, 2002; Walsh & McGoldrick, 1991; Worden, 2008). 무엇보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사별과 같은 관계의 상실은 지적,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발달단계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변화들이 지연되거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된다(Fleming, & Adolph, 1986).

부모사별 자녀에 대한 연구는 서구의 경우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다[2]. 선행연구들

---

1)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모사별' 이라는 용어는 부모님 중 한 분만 사망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모님 모두가 사망한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서구의 경우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내 사회복지 학계 및 실천계의 관심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부모사별 청소년에 대한 이해는 한부모가족 청소년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한부모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이 된 사유에 대한 구별 없이 결과를 도출하고 있어 한부모가족이 된 다양한 사유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남영옥, 2010; 이용교, 2004; 차유림, 2011). 부모의 사별과 이혼은 자녀로부터 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하고, 적응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점이 이론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정영숙 외, 2009),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모사별 자녀에 대해 진행된 국내 선행연구에는 사별 스트레스와 불안수준을 탐색한 백기청의 연구(1990), 자아존중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박효실의 연구(2002),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기제를 적응유연성 관점에서 검증한 차유림의 연구(2012) 등이 있다.

에 의하면 부모사별 이후 자녀는 슬픔, 무기력, 죄책감, 공포감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별슬픔이 긍정적으로 극복되지 않으면 우울·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공격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동 혹은 위축행동 등이 증가하기도 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학업성적이 떨어지고, 수업 흥미도가 저조해지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오승환, 2001; Amato & Keith, 1991).

반면 부모사별 자녀들이 사별 경험 이후 문제 상황에만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되고 있다. 부모사별 청소년들이 부모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들을 심리적 측면에서 더 성숙하다고 여기거나(Balk & Corr, 2002), 의사소통 기술이나 문제해결 기술이 향상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강화되었다는 결과도 확인된다(Oltjenbruns, 1991). 가치적인 차원에서 현재를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게 되거나(Balk, 1996; Krementz, 1983), 사별 경험 이후 형제애, 책임감, 자립심이 강하게 나타났고, 가족들간의 유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이필금, 2001).

이와 같이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적응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Bonanno et al., 2008; Haine et al., 2006). 이와 관련하여 Haine과 동료들(2006)은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전환사건모델(the transitional events model)이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이 모델은 부모사별과 같은 주요한 사건을 경험한 이후의 자녀의 적응이 사별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가족구성원의 분리, 살아있는 부모의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주거환경의 변화 등) 및 보호요인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사별 청소년들의 적응 문제 중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우울·불안에 부정적 생활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사별 이후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보호요인 중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영적 안녕감이 이러한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Melvin과 Lukeman(2000)은 조절효과를 갖는 보호요인을 아는 것은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는데, 높은 수준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었을 때에도 보호요인을 주요한 개입목표로 상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적응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간의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의 조절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별 이후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들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적 안녕감은 이러한 영향에 대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부정적 생활사건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영적 안녕감은 조절효과를 갖는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

우울·불안은 부모사별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 중 대표적인 개념이다. Tyson-Rawson(200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우울감을 경험할 비율이 부모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한 부모와 갈등관계에 있었거나 의존적인 관계를 맺었던 경우, 이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7-16세의 아동 및 청소년 109명을 대상으로 6년간 연구를 진행한 Schoenfelder와 동료들의 연구(2011)에서도 우울·불안이 주요한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들은 부모사망이 자녀의 부정적인 정서 및 행동,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결과물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면서, 특히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부모사별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우울의 수준이 세 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 및 살아있는 부모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부모사별 이후 자녀들이 경험하는 우울·불안문제가 이와 같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Ho와 동료들(2004)은 연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부모사별을 경험한 4-14세 아동 및 청소년 23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이 우울 및 불안, 학업수행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10%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밝히면서 사별을 경험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부모사별 청소년들의 우울·불안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오승환(2001)은 한부모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연구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부모사별을 비롯한 한부모가족의 형성이 자녀의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 대인관계 문제, 학교생활의 부적응, 자아존중감, 인지능력, 도덕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요약하면서, 특히 부모사별 청소년의 경우 부모사망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부모사별 이후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성인기의 우울도 유발될 수 있다(Clark et al., 1994). 실제로 아동기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성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성인보다 우울, 자살행동 등 더 많은 수준의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Bendiksen & Fulton, 1975; Silverman & Worden, 1992), 부모사별로 인한 우울·불안은 청소년의 삶에 장·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볼 때, 우울·불안은 부모사별 청소년들이 사별 경험 이후 건강하게 성장하고 적응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결과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기제를 검토하고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

Haine과 동료들(2006)은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의 적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로서 전환사건모델(the transitional events model)을 들고 있다. 전환사건모델에서는 부모사별과 같은 주요한 스트레스 사건들은 특성상 그 영향이 요원하며 시간적으로 보다 가까운 수준의 부정적인 사건들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이때 자녀의 개인 자원과 환경 자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적인 부정적 사건들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기제들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사별과 같은 주요 생활사건에 뒤따르는 부정적 사건들과 자원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가 이후 적응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녀가 부모의 사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사망을 단일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 부모사망 전후에 발생하는 사건들과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Berlinsky & Biller, 1982)과 맥락을 같이 하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부모사별 경험 여부 자체가 자녀의 적응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부모사별의 결과로 알려진 생활사건과 관련된 변수들이 청소년의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Lin et al., 2004; Noppe & Noppe, 2004; Raveis et al., 1999). 부모사별은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녀가 영위하는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경제적 수준의 변화, 이사, 전학, 부모의 재혼 등 부모사별 이후의 변화들은 자녀의 적응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게 되고, 일상생활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변화가 심한 경우 역시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West와 동료들(1991)은 부모사별 이후 가정환경에 혼란이 발생하고, 그 변화가 자녀의 심리적 문제를 증가시키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Adam(1982)은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가족환경의 불안정성은 자녀의 자살의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남은 배우자는 심리적 디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Kwok et al., 2005).

정리하면 부모사별은 일회적 사건으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 그 이후 발생하는 생활환경의 변화 등이 자녀 적응에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사별을 경험한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적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부정적 생활사건들은 개입을 통해 변화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정적 생활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부모사별 청소년들의 심리적 문제 수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3. 영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spiritual well-being)이란 인간의 영적 본성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절대자, 최고의 가치,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된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써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말한다(Soeken & Carson, 1987). 일반적으로 영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영적안녕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영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실존적 영적 안녕감(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의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나뉜다[3].

종교적 안녕감은 인간이 신(혹은 초월자, 절대자, 나보다 더 크신 이)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의미한다. 즉 신(초월자)에 대한 이미지와 느낌, 신이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의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신 혹은 절대자를 비롯하여 우주와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정도를 측정한다. 또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질병, 고통과 같은 현실의 문제와 삶의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는지의 정도도 종교적 영적 안녕감에 포함되어 있다. 실존적 안녕감은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을 말한다. 즉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과 장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정도, 살아가는 목적과 삶에 대한 의미부여의 정도 등으로 측정한다(김유심, 2008).

특히 영적 안녕감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개인적인 삶의 위기 시에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자원 역할을 하며, 사별, 학대 등 안녕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삶의 사건들 혹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촉진자적 역할을 한다(오복자·강경아, 2000; Balk., 1999; Farley, 2007; Hooyman & Kramer, 2006). 실제로, 최근 6개월에서 5년 사이에 부모사별을 경험한 12-1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Gray(1987)는 영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감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Schaefer와 Moos(2002)는 영성이 사별을 경험한 사람의 긍정적인 재해석을 돕고, 문제해결 중심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응을 돕게 된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영적 안녕감은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적 안녕감이 높은 경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 하에서도 청소년들이 그 어려움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해결해나가는 정도 역시 높아 부정적 생활사건의 부(-)적인 영향력을 완충시킬 수 있을

3) 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자 중 기독교와 천주교의 비율이 77.6%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적 안녕감은 주로 기독교 영성에 기반한 종교적 영성과 실존적 영성 두 가지 하위차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국내 연구가 없으므로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안녕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는 것은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이며,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을 돕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표집방법 및 조사절차

본 연구에서는 친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현재 또 다른 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사별을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모집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확률표본추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료는 서울과 경기, 대전광역시, 경북, 경남, 전남, 제주 지역의 9개 지역사회복지관과 15개의 모(부)자보호시설, 16개의 1318 Happy Zone, 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협조를 구해 수집하였다. 기관의 실무자와 조사대상자 모두의 동의를 거친 후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청소년들에게는 문구류를 전달하였다. 설문조사는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방문 및 우편발송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총 254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가운데 232부가 수거되었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와 가족구조 특성이 극단치라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총 19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변수 및 연구모형

(1) 독립변수 : 부정적 생활사건

본 연구에서는 Program for Prevention Research(1987)에서 제작한 Parent Death

Event List(PDEL)로 부정적 생활사건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사별 경험 이후 발생하는 생활사건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 상황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응답하게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생활사건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환경 변화, 살아있는 부모의 디스트레스, 자녀 행동에 대한 기대, 죽은 부모에 대한 언급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Cronbach's Alpha는 .866으로 적정수준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4].

(2) 종속변수 : 우울·불안

본 연구에서는 부모사별로 인한 우울과 불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Achenbach (1991)가 제작한 Youth Self-Report(YSR)를 오경자 등(1997)이 번안하고 표준화절차를 거친 청소년자기행동평가척도(K-YSR) 중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는 16개 문항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리커트식 3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본다. Cronbach's Alpha는 .870이었다.

(3) 조절변수 : 영적 안녕감

영적 안녕감은 Paloutzian과 Ellison(1982)이 개발한 척도를 박지아와 유성경(2003)이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주관적인 영적 안녕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종교적 안녕감(religious spiritual well-being)과 실존적 안녕감(existential spiritual well-being)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총 20문항으로 리커트식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감이 높다고 본다. Cronbach's Alpha는 .828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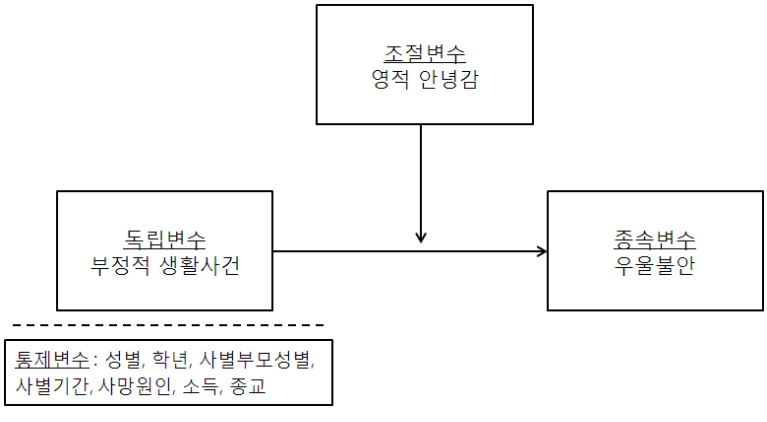
(4)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 학년, 사별부모의 성별, 사별기간, 사망원인, 소득, 종교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사별 이후 우울·불안이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Hope & Hodge, 2006), 사망원인이 질환으로 인해

4)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정충영·최이규, 1999).

예측된 것이었는지 혹은 사고나 자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자녀의 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Fleming & Balmer, 2004; Hope & Hodge, 2006; Schaefer & Moos, 2002). 또한 사별 이후 시간이 흐르면 적응 수준이 좋아진다는 연구와, 사별 초기에는 적응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울 등의 문제를 경험하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들이 혼재되어 있고(Fleming & Balmer, 2004), 사별부모가 아버지인지 혹은 어머니인지의 여부에 따라 자녀의 적응수준이 다르게 보고된다(Silverman & Worden, 1992). 이러한 특성들은 연구에 따라 그 결과가 상이하고, 혹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살펴보았다.

위의 변수를 활용한 연구모형은 다음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Packag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둘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사별관련 특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19명으로 전체의 62.0%, 여학생이 73명으로 38.0%를 차지해 남학생이 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5].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중학교 1학년이 14명(7.3%), 중학교 2학년이 19명(9.9%), 중학교 3학년이 46명(24.0%), 고등학교 1학년이 46명(24.0%), 고등학교 2학년이 36명(18.8%),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31명(16.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학생이 79명으로 41.2%, 고등학생이 113명으로 58.8%를 차지하고 있어 고등학생이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종교를 살펴본 결과, 기독교가 127명(66.1%)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가 22명(11.5%), 불교가 3명(1.6%), 종교가 없는 경우가 40명(2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한 달 평균 수입을 질문한 결과, 100만원 미만 92명(4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0명(46.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0명(5.2%)으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자 대부분의 가구 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의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돌아가신 부모님 성별은 아버지가 150명으로 78.1%, 어머니가 42명으로 21.9%로 나타나 본 연구에는 어머니보다 아버지 사망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원인은 질병 124명(64.6%), 사고 64명(33.3%), 자살 4명(2.1%)으로 질병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김승권의 연구(2002)에서 우리나라 가족해체의 발생원인 중 사망의 경우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고, 사고, 자살 등의 순이라고 정리한 것과 동일한 순서를 보이는 것이다.

---

5) 응답자의 성별 비율에 차이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낮은 응답 참여율을 들 수 있겠다. 조사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에 대해 기관 실무자들의 동의와 응답자들의 동의를 모두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설문조사에 거부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여학생들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적절한 성비를 맞출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별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조사하였다. 사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23명(12.0%), 1년 이상-2년 미만이 3명(1.6%), 2년 이상-3년 미만이 37명(19.3%), 3년 이상-4년 미만이 12명(6.3%), 4년 이상-5년 미만이 15명(7.8%), 5년 이상-6년 미만이 19명(9.9%), 6년 이상-7년 미만이 6명(3.1%), 그리고 7년 이상 된 경우가 77명(40.1%)으로, 부모님 사망 이후 7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특성상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중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소득 수준도 저소득 가족이 많이 표집되었으며, 종교를 기독교라고 응답한 대상자의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6].

〈표1〉 조사대상자 전체의 일반적 특성(n=192)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19	62.0
	여	73	38.0
학년	중1	14	7.3
	중2	19	9.9
	중3	46	24.0
	고1	46	24.0
	고2	36	18.8
	고3	31	16.1

6) 통계청 전국가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18세 미만 자녀가구는 전체가구 중 43.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평균소득이 약 350만원으로, 양부모는 약 370만원, 한부모는 약 224만원으로 파악되었다(김승권 외, 2009). 또한 국민 전체 종교 비율을 조사한 결과, 무교 2,186만명, 불교 1,072만명, 기독교 861만명, 천주교 514만명으로 집계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08). 본 연구 대상자 가구 소득은 200만원 미만의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종교는 기독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본 연구 대상자 특성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구분		빈도(명)	비율(%)
종교	기독교	127	66.1
	천주교	22	11.5
	불교	3	1.6
	없음	40	20.8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92	47.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90	46.9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0	5.2
사별 부모 성별	아버지	150	78.1
	어머니	42	21.9
부모 사별 원인	질병	124	64.6
	사고	64	33.3
	자살	4	2.1
사별 기간	1년 미만	23	12.0
	1년 이상-2년 미만	3	1.6
	2년 이상-3년 미만	37	19.3
	3년 이상-4년 미만	12	6.3
	4년 이상-5년 미만	15	7.8
	5년 이상-6년 미만	19	9.9
	6년 이상-7년 미만	6	3.1
	7년 이상	77	40.1

2.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다음의 <표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자료의 집중 경향성과 분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고,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 지수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왜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05),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2〉 주요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n=19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립변수	부정적 생활사건	11.56	5.74	-.390	.117
종속변수	우울・불안	41.44	4.91	-.145	1.328
조절변수	영적 안녕감	77.54	11.45	.159	.660

3.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생활사건 수준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자녀성별, 학년, 사망부모성별, 사망이유, 사망년도, 종교, 소득을 통제변수로 두고 부정적 생활사건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별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얻어지는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가 10 이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이면 해당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음을 뜻하는데, 본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경우 기준치보다 그 값이 작아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3〉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β
통제변수	자녀성별	-1.548	-.154*
	학년	.360	.107
	사별부모성별	-2.764	-3.074**
	사망이유	.121	.164
	사망년도	.236	.071
	종교	-3.124	-.257***
	소득	.399	.048
독립변수	부정적 생활사건	.120	.141**
상수		40.153***	
F		4.956***	
adjusted R^2		.142	

*p<.05, **p<.01, ***p<.001

자녀성별(남자1/여자 0), 사망부모 성별(아버지1/어머니0), 사망이유(질환1/사고 및 자살2), 종교(있음1/없음 0)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불안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 생활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별이후 경험하게 되는 부정적 사건들이 자녀의 우울·불안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Berlinsky & Biller, 1982; Clark et al., 1994; Glick et al., 1974; Krunpick, 1984)과 동일한 결과로,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환경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주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종교가 없는 경우 우울·불안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3>과 같다.

4.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조절효과 분석은 특정한 변인이 적응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상과 언제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줄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개입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상자에게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개입대상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Baron & Kenny, 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영적 안녕감이 조절하는지의 여부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의 예측식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E(Y \mid x, z) = \gamma_0 + \gamma_1 x + \gamma_2 x + \gamma_3 xz$$

γ는 회귀계수, x는 독립변수, z는 조절변수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γ3의 검증은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가 투입된 다음, 상호작용항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호작

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총괄 F검증(omnibus F test) 즉 R^2 변화량이 유의미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앞서 자료에 대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균중심화는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회귀계수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홍세희, 2010).

통제변수와 독립변수, 조절변수, 상호작용항 모두를 분석모델에 포함하여 상호작용항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부정적 생활사건과 영적 안녕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Ⅱ의 R^2 변화량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적 안녕감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용은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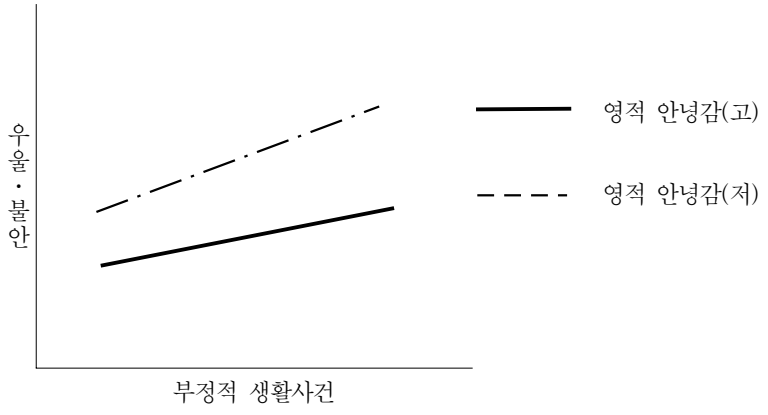
〈표 4〉 부정적 생활사건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변수		모델Ⅰ		모델Ⅱ	
		B	β	B	β
통제변수	자녀성별	-2.564	-.254***	-2.701	-.268***
	학년	-.172	-.051	-.230	-.068
	사망부모성별	-2.411	-.204**	-2.362	-.200**
	사망이유	.870	.085	.805	.079
	사망년도	.206	.062	.247	.075
	종교	-2.063	-.170**	-1.648	-.136*
	소득	.063	.008	.008	.000
독립변수	부정적 생활사건	.126	.147*	.130	.152*
조절변수	영적 안녕감	-.200	-.466***	-.205	-.479***
상호작용항	부정적 생활사건×영적 안녕감			-.014	-.140*
상수		23.023***		22.813***	
F		10.753***		10.407***	
adjusted R^2		.315		.330	
R^2 변화량				.018*	

*p<.05, **p<.01, ***p<.001

자녀성별(남자1/여자 0), 사망부모 성별(아버지1/어머니0), 사망이유(질환1/사고 및 자살2), 종교(있음1/없음 0)

또한 영적 안녕감이 높은 청소년은 영적 안녕감이 낮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불안 수준이 낮고, 특히 부정적 생활사건 수준이 높더라도 영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생활사건이 우울·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의 [그림2]와 같다.



[그림2]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이와 같이 영적 안녕감의 정도에 따라 부정적 생활사건과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간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영적 안녕감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사건의 완충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들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인간은 예측가능하고, 이해가능하며, 의미가 있고, 호의적인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부모의 사망과 같은 외상적 사건을 직면하게 되면 세계관이나 인생관에 대한 불일치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즉각적인 디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어 우울·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Krok, 2008). 그러나 이때 영적 안녕감은 부모 사망이라는 사건을 이해하고 대처해 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되고 있다(Carroll, 1998).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영적 안녕감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있어 사회복지적 개입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과 청소년의 우울·불안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영적 안녕감이 부정적 생활사건과 청소년의 우울·불안간의 관계에 있어 조절기능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사별 이후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불안이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생활사건의 발생정도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의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적 생활사건과 영적 안녕감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영적 안녕감 수준에 따라 부정적 생활사건과 우울·불안간의 관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낮은 영적 안녕감 수준은 청소년의 우울·불안을 취약하게 할 수 있는 반면, 높은 영적 안녕감 수준은 부모사별 청소년을 우울·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부정적 생활사건에 노출되더라도 영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부모사별 청소년의 경우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이 감소 혹은 소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부정적 생활사건에 대한 완충효과를 보이는 영적 안녕감을 주요한 개입목표로 상정하여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사별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의 영향을 다루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해당 경험 즉 사별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만일 있다면 누가 책임이 있으며, 개인의 삶과 인생관에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인데, 이 때 영적 안녕감은 발생한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며, 용서 기제를 제공하여 사별 사건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대처해감으로써 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한다(Greene, 2002; Thompson, 1985).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영적 안녕감은 사별 사건 이후 개인의 적응 결과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적응 결과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영적 안녕감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거나(유장춘, 2003; 조휘일, 2005), 척도를 개발하고(이경열 외, 2003), 몇 몇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과 삶의 목적, 정신건강간의 관계를 검증하거나(강은실, 2003; 김은정, 2006; 김재연, 2008), 영적 안녕감과 적응 혹은 적응유연성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

(박지아·유성경, 2003; 유성경·심혜원, 2002)이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영적 안녕감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거나 부모사별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개입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서 부모사별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영성민감형 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실천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Canda, 1998)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사별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이 영성을 통합하는 지식, 가치, 기술을 보유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Carroll, 1998; Sheridan, 2004), 이를 위해 개별 기관에서는 교회나 성당, 절 등의 지역사회 종교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모사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울·불안과 부정적 생활사건의 관계 및 두 변수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절변수를 탐색한 시초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영적 안녕감의 구체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조사대상 표본은 편의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선정되어 연구의 결과를 전체 부모사별 청소년들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높고, 소득수준은 비교적 저소득가정이 많으며, 사망부모 성별에서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석방법론과 관련된 한계이다.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대게 다중회귀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다소 복잡하며, 최적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사회과학연구들에서 조절효과의 검증과 관련하여 다중회귀모형이 선호되고 있다(박현선·이상균, 2008).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다중회귀모형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나, 표본의 수가 작기 때문에 측정오차로 인한 검증력 약화는 한계로 남는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적 자료를 통해 위험요인이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부정적 생활사건의 영향에 대한 영적안녕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많은 시점의 반복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사별 청소년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부모사별 후의 경험과 같이 알려진 것이 거의 없거나 또는 가족구성원의 죽음처럼 익숙하지만 새로운 이해를 얻기 위한 주제를 탐색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개입 지점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강은실 (2003).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3). 245-259.

권미란 (2001). “아동기 사별과 이의 영향.” 「나사렛논총」. 제6집. 177-243.

김승권·김태완·임성은·고은주 (2009). 「한부모가족 생활안정화 및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2006).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심 (2008). “빈곤층 여성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 - 영적안녕감, 가족자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재연 (2008). “청소년의 영적성숙도와 종교성향과 자아탄력성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영옥 (2010). “이혼가정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219-243.

문화체육관광부 (2008). 「2008 한국의 종교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박지아·유성경 (2003). “적응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65-778.

박현선·이상균 (2008). “청소년기 비행친구의 영향에 대한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연구」. 37. 399-427.

박효실 (2002). “부모사별 후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 대처자원과 가족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기청 (1990). “소년기 사별 스트레스와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 「임상연구논문집」. 243-255.

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연구소.

오복자·강경아 (2000). “영성 개념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0(5). 1145-1155.

오승환 (2001).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유성경·심혜원 (2002). “적응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유장춘 (2003).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영성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탐색.” 「통합연구」. 16(2). 9-44.

이경열·김정희·김동원 (2003). “한국인을 위한 영성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11-728.

이용교 (2004). 「한부모가족 청소년을 위한 복지대책 토론자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필금 (2001). “사별 편모 가정의 사회·심리적 자립방안에 관한 질적 접근.”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승희 (2007). “사별가족과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간호학탐구」. 16(1).

102-117.
정영숙・신민섭・이승연 (2009).「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정충영・최이규 (1999).「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무역경영사.
조휘일 (2005). "사회사업실천을 위한 영성 연구".「사회복지실천」. 5. 5-20.
차유림 (2011). "한부모가족 청소년의 심리적・행동적・학업적 적응에 관한 연구 : 이혼가족과 사별가족의 비교를 중심으로."「학교사회복지」. 21권. 31-55.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적응유연성 관점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세희 (2010).「구조방정식 모형 워크샵 자료집」. S&M리서치 그룹.
Adam, K. S. (1982). "Loss, suicide and attachment." In C. M. Parkes & J. Stevenson-Hinde (Eds.), *The place of attachment in human behavior* (pp.269-295). New York: Basic Books.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Thousand Oaks: Sage.
Amato, P. R. & Keith, B. (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Balk, D. E. (1991). "Death and adolescent bereavement: current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 7-27.
Balk. D. E. (1999). "Bereavement and spiritual change." *Death Studies*, 23, 485-493.
Balk, D. E., & Corr, C. A. (2002). "Bereavement during adolescence: A review of research."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199-218).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Bendiksen, R., & Fulton, R.(1975). "Death and the child: An anterospective test of the childhood bereavement and later behavior disorder hypothesis." *Omega: Journal of Death and Dying, 6,* 45-60.
Berlinsky, E. B., & Biller, H. B. (1982). *Parental death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Lexington, MA: D. C. Heath.
Bonanno, G. A., Boerner, K., & Wortman, C. B. (2008). "Trajectories of grieving." In Margaret S. Stroebe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and practice: advances in theory and interventi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anda, E. R. (1998). *Spirituality in Social Work : New Directions.*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Carroll, M. (1998). "Social work's conceptualization of spirituality." In: Canda, E.(E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New directions*. New York: The Haworth Pastoral Press.

Clark, D. C., Pynoos, R. S., & Goebel, A. E. (1994). "Mechanisms and processes of adolescent bereavement." In Haggerty, Robert J. *Stres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process, mechanisms, and interventions*. (pp.100-14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arley, Y. R. (2007). "Making the connection: spirituality, trauma and resiliency."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26(1)*, 1-15.

Fauth, B., Thomson, M., & Penny, A. (2009).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bereavement and children's background, experiences and outcomes: Secondary analysis of the 2004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Great Britain data." National Children's Bureau.

Fleming, S. J., & Adolph, R. (1986). "Helping bereaved adolescents: needs and responses." In Corr, Charles A. *Adolescence and Death*. Springer. pp.97-118.

Fleming, S., & Balmer, L. (2004). "Adolescents, developmental tasks, and encounters with death and bereavement." In Corr, C. A., & Balk, D. E.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 (pp.139-154). New York, NY: Springer.

Glick, I., Weiss, R., & Parkes, C. (1974). *The first year of bereavement*. New York: Basic Books.

Gray, R. E. (1987). "Adolescent response to the death of a par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6)*, 511-523.

Greene, R. (2002). *Resiliency*. Washington, DC: NASW Press.

Haine, R. A., Wolchik, S. A., Sandler, I. N., Millsap, R. E., & Ayers, T. S. (2006). "Positive parenting as a protective resource for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Death Studies, 30,* 1-28.

Ho, C., Mak, H. M., Sze, W. K., & Babson, J. F. (2004). "Psychosocial impact of bereavement on children." *Quality of Life Research*, 13(9). Abstracts: 11th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Quality of Life Research, p.1575.

Hooyman, N. R., & Kramer, B. J.(2006). *Living through loss: interventions across the life span*. Columbia University Press.

Hope, R. M., & Hodge, D. M.(2006). "Factors affecting children's adjustment to the death of a parent: The social work professional's viewpoint."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3(1), 107-126.

Ickovics, J. R., Meade, C. S., Kershaw, T. S., Milan, S., Lewis, J. B., Ethier, K. A. (2006).

"Urban teens: trauma, posttraumatic growth, and emotional distress among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5, 841-850.

Judd, C. M., McClenlland, G. H., Culhane, S. E. (1995). "Data analysis: Continuing issues in the everyday analysis of psychological dat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6*, 433-465.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이현숙・김수진・전수현 공역(2010), 학지사.

Krementz, J. (1983). *How it feels when a parent dies*. New York: Knopf.

Krok, D.(2008). "The role of spirituality in coping: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dimensions and coping styles." *Mental Health, Religion & Health*, *11(7)*, 643-653.

Kwok, O, Haine, R. A., Sandler, I. N., Ayers. T. S., Wolchik, S. A., & Tein, J. (2005). "Positive parenting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distress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2)*, 260-271.

Leighton, S. (2008). "Bereavement therapy with adolescents: facilitating a process of spiritual growth." *Journ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Nursing, 21(1)*, 24-34.

Lin, K. K., Sandler, I. N., Ayers, T. S., Wolchik, S. A., & Luecken, L. J. (2004). "Resilience in parentally bereaved children and adolescents seeking preventive service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3(4)*, 673-683.

Melhem, N. M., Moritz, G., Walker, M., Shear, M. K., & Brent, D. (2007). "Phenomenology and correlates of complicated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6*, 493-499.

Melvin, D., & Lukeman, D. (2000). "Bereavement: a framework for those working with children."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4)*, 521-539.

Noppe, I. C., & Noppe, L. D. (2004). "Adolescent experiences with death: letting go of immortalit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2)*, 146-167.

Oltjenbruns, K. A.(1991) "Positive outcomes of adolescents' experience with grief."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6, 1, 43-53.

Paloutzian, P. E.,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Raveis, V. H., Siegel, K., & Karus, D. (1999). "Children's psychological distress following the death of a par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2),* 165-180.

Schaefer, J. A., & Moos, R. H. (2002). "Bereavement experiences and personal growth."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145-167).

Schoenfelder, E. N., Sandler, I. N., Wolchick, S., & MacKinnon, D. (2011). "Quality of social relationship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parentally-bereaved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 85-96.

Sheridan, M. J. (2004). "Predicting the use of spirituality derived interventions in social work practices: A survey of practitioners." *Journal of Religion and*

Spirituality in Social Work, *23(4)*, 5-25.
Silverman, P. R., & Worden, J. W. (1992). "Children's reactions in the early months after the death of a paren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rty, 62*, 93-104.
Soeken, K. L. & Carson, V. B. (1987). "Responding to the spiritual needs of the chronically ill."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2(3)*.
Thompson, S. (1985). "Finding positive meaning in a stressful event and coping." *Basic Applied Social Psychology*, *6(4)*, 279-295.
Tyson-Rawson, K. J. (2004). "Adolescent responses to the death of a parent." In Corr, C. A., & Balk, D. E.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 (pp.155-172). New York, NY: Springer.
Walsh, F. & McGoldrick, M. (2004). *Living beyond loss: death in the family*. New York: W.W. Norton.
West, S. G., Sandler, I., Pillow, D. R., Baca, L., & Gersten, J. C. (1991).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enerative research: toward the design of a preventive intervention for bereave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4)*, 459-480.
Wolchik, S. A., Coxe, S., Tein, J. Y., Sandler, I. N., Ayers, T. S.(208-2009). "Six-year longitudinal predictors of posttraumatic growth in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Omega*, 58, 2, 107-128.
Worden, J. W. (2008). 가족을 잃은 아이의 슬픔. 전석균·임승희 역. 시그마프레스.

ABSTRACT

The effect of negative life events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

Yu Rim Cha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life events and depression-anxiety of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on negative life events was examined.

The sample included 192 bereaved adolescents ages 13 to 18 years(boys: 62.0%, girls: 38.0%/father death: 78.1%, mother death: 21.9%/anticipated death: 64.6%, sudden death: 35.4%). Community agencies represented the most common sources of referral. In order to examine main effect and moderating effec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statistical package SPSS/PC V.17 was used.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findings suggested that negative life even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bereaved adolescents. Second,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negative life events were moderated by the spiritual well-being.

This study is the first to examine the relations of negative life events,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anxiety of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of Korea. The finding indicated that the level of negative life events influence the level of depression-anxiety. And the level of spiritual well-being moderated the influence of negative life events on depression-anxiety. This result demonstrated that spiritual well-bei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pression-anxiety problems of the bereaved adolesc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ocial work practice should consider spiritual well-being as an important aspect of adjustment after

bereavement. Also various programs suitable for the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should be developed.

Key Words: parentally bereaved adolescents, negative life events, depression-anxiety, spiritual well-being, moderating effect